



다시 벤처다!

극심한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 '제2 벤처 붐' 조성을 위해 협회는 그동안 벤처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벤처다(Venture Again!)'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10대 아젠다(agenda)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8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유관기관장 및 협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장흥순 회장은 10대 아젠다를 설명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벤처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속도가 늦더라도 제대로 된 벤처를 해보자"며 "내년에는 벤처가 다시 뛰는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벤처 재도약을 위해 분야별 태스크포스팀(TFT)을 결성, 연말까지 구체적인 벤처육성 대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 부처 및 여당에서 일고 있는 벤처산업 재육성 의지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다음은 협회 장흥순 회장이 발표한 '다시 벤처다(Venture Again!)'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10대 아젠다를 요약한 글이다.

Venture Again!



▲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벤처기업 대표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 벤처기업 간담회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중앙),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왼쪽),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오른쪽) 등이 참석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코스닥시장은 신성장 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통합 후 역할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코스닥시장은 중소 및 성장형 기업중심, 고수익을 추구하는 모험형 투자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을 지향해 신성장기업군, IT839 등 성장형 기술혁신기업의 시장 진입하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퇴출제도를 강화하고 코스닥시장 규제의 역차별을 해소하며, 연기금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M & A 활성화 미국 벤처기업 나스닥시장 입성까지 생존률은 고작 5%대. 따라서 애초부터 M&A 시장을 목표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많다. 우리 벤처기업들도 창업 → M&A → 재창업하는 선순환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성장 단계별 M&A를 촉진시키는 한편 채무재조정 등의 허용을 통해 M&A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벤처 캐피탈 활성화 벤처캐피탈은 투자회수 지원 또는 실패 등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우선 현금화되지 않은 현물자산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늘리며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공정 거래 제도 확립 대기업은 엄청난 흑자로 과다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벤처로의 투자 이행은 미미해 확대 선순환에 어려움이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여건이 부족해 연구개발·설비투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별도 계약에 의하지 않는 원가계산서, 부품구성도, 특허 등 영업비밀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벤처 패자부활 기반 마련 벤처기업은 기본적으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가 속성이다. 그러나 실패한 기업가의 기술·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고 신용불량자의 오명만 남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리 119제도 ▲사업제도전 펀드운영 ▲실

패 경험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분위기 조성 ▲획기적 창업지원대책 마련으로 다산다사형 벤처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종료 재검토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이 2007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캐시카우(Cash-cow) 역할을 할 수 있는 벤처산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벤처법의 범상시한을 연장해 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특별조치법은 존속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벤처 자율역량 강화 벤처기업은 짧은 기간에 고용창출과 수출 등에 기여했으나 성장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 노출이 심해져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가가 참여하는 공익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해 벤처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진출지원 전문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진출지원 전문기구를 설립해 추진 중이다. 이는 벤처종합상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성장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요품목의 수입규모 및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부품소재 국산화가 시급하다. 또 기업규모가 영세해 고기술 신제품 개발능력이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부품소재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중견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세계적 전문기업을 육성하려면 부품소재기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필요하다. 또 대일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경쟁력 낮은 부품소재를 집중 개발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세계 SW 시장은 전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23배에 달하는 대규모이다.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원동력이 제조업이라면 SW산업은 제조업 공동화, 청년실업문제 등을 해결하면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열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국산 SW 사용은 저조하고, 대기업 SI사업자에게 종속된 산업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산 SW제품의 공공기관내 수요창출 조치가 필요하고, SI 프로젝트에서 SW 분리 발주, 국산 SW 조달가격 현실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에 리눅스 도입 등이 시급하다.

DMB 서비스 조기 상용화 우리나라의 지상파 DMB 기술을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3월 방송법이 개정된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DMB 서비스 실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하다.

사업자 조기선정 및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 IT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DMB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지상파 DMB 단말기 개발을 장려하고, 2006년 독일월드컵, 2008년 중국올림픽 등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시장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장흥순 회장 및 회장단은 '다시 벤처다(Venture Again!!!)' 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